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2017. 2. 13(월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장 박근오 / 사무관 서효원 (Tel. 044-200-2226)
* 엠바고 : 2.13(월) 13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 / 모두말씀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미래창조과학부			

## 젊은 과학기술인의 창조적 도전은 대한민국 경쟁력!

- 황교안 권한대행, 젊은 과학기술인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미래비전 공유
- 젊은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의지 강조

### < 주요내용 >

- 황교안 권한대행, 2월 13일(월) 오후, 젊은 과학기술인(14명)을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함
  - 젊은 과학기술인의 연구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·확산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
- 황 권한대행은 '과학기술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왔던 것처럼,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'이라고 강조하며
  - 바이오, 소재, 원자력, 우주 등 각 분야에서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이끌고, 세계적인 과학기술인으로 발돋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- 정부는 생애 첫 연구사업 신설,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·자유공모형 기초연구 규모·출연연구소 인건비 확대 등 젊은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강화할 계획임

-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13일(월) 12시, 과학기술 최일선 현장에서 패기와 열정으로 성과를 일궈나가고 있는 젊은 과학기술인\* 14명을 서울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가졌다.

\* (참석) ▲과학기술인(15명, 가나다 순) : 김계리(한국과학기술연구원), 김경미(기초과학연구원), 김관표(울산과학기술원), 김낙현(한국원자력연구원), 김동성(포항공대), 김석권(항공우주연구원), 김재경(한국과학기술원), 김현경(서울대), 남기태(서울대), 서명원(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), 서지원(연세대), 엄광섭(광주과학기술원), 최현용(연세대), 황교선(한국과학기술연구원)

▲정부 : 미래창조과학부 장관

- 이번 간담회는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과학기술인의 연구 성과와 미래 비전을 서로 공유·확산하고,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다.
- 황 권한대행은 ‘과학기술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왔던 것처럼,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’이라고 강조하며,
  -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R&D 혁신,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, 신산업 창출 규제개선을 통해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, 경제 활력의 돌파구를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  - 아울러, 생애 첫 연구사업 신설,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·자유공모형 기초연구 규모·출연연구소 인건비 확대 등 젊은 과학기술인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- 별도 격식 없이 이날 간담회에서 젊은 과학기술인은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,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정책 지원에 관해 논의하였다.

- 참석자들은 창조적 도전을 위한 연구기회 보장, 유연한 연구 환경 조성 등 자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.
  - 또한, 신성장 동력의 씨앗인 연구 성과물이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연구 관련된 제반 규제(ex. 생명윤리법 등)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였다.
- 황 권한대행은 ‘바이오, 소재, 원자력, 우주 등 각 분야에서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역동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’고 언급하며,
- ‘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구에 매진하여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이끌고, 각자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인으로 발돋움해 줄 것’을 당부하였다